

정재원씨 징용소송 '불리'

법원, 재판진행 보류요청 받아들여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정재원(71)씨 케이스가 정씨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은 24일 일본계 기업 오노다 시멘트사 변호인단에서 지난 14일 신청한 LA민사법원의 정씨 케이스 기각요청 거부명령에 대한 재심과 재심과정이 끝날 때까지 재판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주항소법원은 오는 4월30일 정씨 케이스 기각요청을 거부한 피터 리크만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재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인확보 및 증거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씨 케이스에 대한 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장연화 기자